

“담양 관광지 구경하고 농특산물 할인 받자”

지역 관광지 입장권 소지 관광객 전 제품 20% 할인 3만 원 이상 구매고객 '대숲맑은 담양 쌀' 무료 증정

담양군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의 농특산물을 할인 판매하는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

담양군은 담양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관광지를 방문하고 전일과 당일 입장권을 소지한 관광객에게 '담양장터 물'의 전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관광지 입장권을 소지한 관광객에게는 '담양장터 물' 전 제품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3만 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 대상 수상한 '대숲맑은 담양 쌀' 500g을 무료 증정한다.

담양장터 물은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에 개장하였으며 농식품을 제조하는 가공업체가 주주가 되어 협동으로 운영하고 담양군이 지원하는 농특산물 전문 온·오프라인 판매장이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네이버쇼핑, G마켓, 쿠팡, 11번가, 옥션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하여 판매하고 있다.

담빛농업관 1층(담양군 면양정로 730)에 위치하고 있는 '담양장터 물'에는 죽순추어탕, 돈가스, 쌀 스파게티, 무항생제 요거트, 죽순떡갈비, 막걸리를 포함한 전통주, 한과,



장류, 참기름 등 560여 개의 다채로운 지역 가공식품이 준비돼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담양장터 물은 지역의 농특산물을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며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담양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강인규 나주시장 "소통 갈등 달렸다" 주민과의 대화 성료 2주간 20개 읍·면·동 현장 목소리 수렴

나주시가 2주간에 걸친 주민 대화를 통해 민선 7기 민·관 소통 행진 유종의 미를 거뒀다.

나주시는 지난 14일 남평읍에서 28일 빛가람동까지 20개 읍·면·동에서 실시한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과의 대화는 매년 연초 시장 운영 방향과 지역별 현안사업을 행정과 시민이 상호 공유하고 생활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건의하는 대표적 민·관 소통의 장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이자 민선 7기를 갈무리하고 다가올 8기 시장을 설계하는 허심탄회한 대화 자리가 되면서 어느 때보다 뜨거운 주민 관심과 참여를 불러 모았다.

시는 참석 인원 50명 제한, 마스크 착용, 장내·개인별 소독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에 철저히 기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올해 주요 시장 청사진으로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건설 및 혁신도시 시즌2 △안전하고 행복한 나주공동체 조성 △삼상생하는 자치농업을 통한 농업·농촌활력 제고 △2천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나주 위상 정립 △호남의 중심도시로 이룰 선도정책 과제 전략적 추진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인구·재정규모·기업유치 등 현황 지표 상승,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개교 등에 따른 나주의 발전상과 과제별 세부 추진 방안, 기대효과 등을 주민과 공유하며 호남의 중심도시 도약의 기대감을 높였다.

올해 주민 건의 건수는 약 200여건으로 대다수 마을 도로 개설 및 확·포장, 배수로 정비,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 등 마을 생활여건 개선, 일상 불편 해소를 위한 건설 분야 사업이 주를 이뤘다. 여기에 '상곡리 토석채취 연장 허가 반대', '남평읍 카본헝스 공장 건립 반대', '빛가람동 초·중학교 과밀 현상 해소',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반대'와 같은 지역별 현안 사업들이 장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시는 대화를 통해 수렴된 건의 안건은 예외 없이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향후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시장에 반영·추진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민선 7기 마지막 주민 대화를 통해 크고 작은 마을 현안, 일상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시민 행복이 최우선인 행정본연의 역할을 숙고하는 시간이었"이라며 "방대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예외 없이 시정에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부터 두루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구례군, 사라지는 꿀벌에 대응한 현실성 있는 교육 추진 양봉 바이어스 및 응애피해 예방방안 중점

최근 전국적으로 꿀벌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양봉농가 전반에 타격이 있는 가운데 전남 구례군 2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봉 농가 30여 명을 대상으로 현실성 있는 예방대책에 대한 현장교육을 추진하였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월동폐사와 벌집 붕괴 피해 등의 원인을 바이러스와 응애 등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그 외에도 등검은말벌 예방방법, 복합화분 사용방법, 밀원식물 활용 등 질병예방과 양봉사육방법 등을 강의하였다. 양봉 농업인들

이 대표적으로 궁금해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참가 농업인들의 호응을 받았다. 구례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컨설팅을 2회 정도 더 추진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농업인께서는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061-780-2568)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꿀벌 사멸 피해 농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양봉산업 안정화를 도모해야한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화순군, 서태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속도

총사업비 415억으로 55억 원 증액

화순군이 잦은 침수피해로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화순읍 서태2지구의 재해취약지역 정비를 위해 '서태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실시설계 결과, 애초 총사업비 360억으로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해 재해위험요인의 근원적인 해소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화순군은 항구적인 재해위험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총사업비를 360억 원에서 415억 원으로 55억 원 증액하는 성과를 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각 부처별(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개별 추진하는 사업을 통합 시행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재해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행정안전부 역점사업이다.

화순군은 올해 상반기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공사에 착수하고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곡성군, 경력단절 여성 20만원 바우처 임신부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한다

곡성군이 경력단절 여성에게 연간 20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와 임신부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한다.

곡성군은 다음달 1일부터 경력단절 여성에게 20만원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고 임신부에게 개인당 10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바우처 카드 지원은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직장을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복귀하기 어려운 여성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전년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35세부터 54세까지 여성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취업 지원 기관에 구직 등록을 해 놓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기한은 다음달 1일부터 29일까지이며, 2차 신청기한은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이다. 이와 함께 곡성군은 임신부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임신 중인 지역민이 대상이며, 임신부 1인당 10개의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한다. 임신 사실은 임신확인서·임산부 수첩 등을 통해 확인하며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대리 수령할 경우에는 임신확인서나 임신부 수첩 외에 대리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도 함께 지참해야 한다.

기동취재본부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